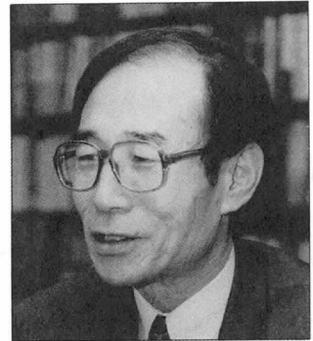


책 사면 '벌금' 무는 나라

윤청광 · 동국출판사 대표



윤청광 사장.

책을 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나라가 있다면 아무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문민정부' 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강행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랴. 이제는 현금 대신 가지가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이른바 신용카드의 시대인데, 신용카드를 사고 팔면 어김없이 벌금 아닌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골프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불금액의 1.5%를 신용카드회사에서 수수료로 떼어가고,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기름을 넣어도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지불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떼어간다. 연금매장에서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1.5%의 수수료만 공제된다. 같은 신용카드를 농산물을 사도 수수료는 1.5%.

그런데 신용카드를 책을 사고 팔면 신용카드회사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는 무려 3.5%나 된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책 사는데 벌금을 물리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신용카드를 결제받고 책을 판 서점이나 출판사는 3.5%를 고스란히 신용카드회사에 빼앗기고 있으니, 얼핏 보면 서점이나 출판사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엄청난 3.5%의 수수료는 결국 소비자인 독자의 몫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더구나, 갈수록 신용카드 이용률이 높아 가는 추세이고 보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수수료 때문에 서점과 출판사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책값을

그만큼 올리거나 마진율의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 결국은 그 폐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전한 소비를 권장하고 불건전한 소비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외쳐왔지만 골프 치고, 드라이브하고, 소비상품 사들이는 데 신용카드를 쓰면 1.5%의 수수료만 받으면서 유독 책을 사는 데는 3.5%의 수수료를 떼어가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가장 건전한 소비, 가장 권장해야 할 소비가 바로 책을 사보는 일인데, 혜택을 주기는 커녕 벌금 아닌 벌금까지 떼어가고 있으니, 이래서야 어느 세월에도 책 많이 읽는 국민이 되어 지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는 정보화시대요, 정보화시대는 곧 지력(知力)의 시대요, 지력의 시대는 독서 없는 이를 수 없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책 사면 벌금 무는 나라' 만든 면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

은 80% 재생지를 쓰고 있다.

이 80% 재생지의 앞날도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 만화책에도 고급화바람이 불었기 때문이다. "서점 판매용 단행본 만화가 크게 늘면서 종이도 예전의 대본소용 재생지에서 고급모조지로 상향되는 추세"라는 것이 대원문화(대표 안현식) 편집부 이성환(30)씨의 말이다.

재생지의 단점은 개성적인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것과 색이 어두워 컬러인쇄나 사진효과가 적다는 점을 꼽는다. 그러나 사실 단행본에 컬러 사진을 실는 사례도 드문 데다가 실는다고 해도 10% 정도의 깨끗한 재생지를 쓰면 문제가 없다. 다만 수요가 적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이다.

한국제지 허인무씨(31)는 "재생지를 생산하는 제지업체는 많지 않다. 리사이클링을 위한 산업시설이 미비하고 폐지수집 등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생지 산업은 아직 실효가 별로 없다"고 말한다. 재생지는 원료 자체는 싸지만 폐지의 수거·운반비용과 탈묵비용 등 제조과정의 원료손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왕에 신문용지를 생산하던 업체 정도가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한솔제지 기술환경팀 이창훈 과장(36)은 "재생지는 수요가 적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생지를 만들기 위한 재활용 설비는 탈묵설비와 폐수처리장을 포함해 1백억원 이상의 비용과 대규모 공장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다.

일년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이는 8백만 톤 정도. 그런데 폐지 수집은 그 50%에 미치지 못한다. 수거가 이루어져도 아트지나 신문용지 골판지 등이 용도별로 분리수거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보관상태 때문에 종이질도 떨어진다. 폐지를 보관할 넓은 창고는 고사하고 대충 부려 놓을 공터조차 부족해 제지회사에서 지원해야 할 형편이다.

재생지 활용 출판이 늘어야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 제지업체들은 폐지를 상당량 수입해서 쓰고 있다. 왜냐하면 수입폐지가 싸고 질기며 보관이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국 폐지는 물류창고처럼 제대로 된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들여오는 반면 우리 폐지는 공터에 방치된 채 눈비와 바람을 맞고 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섬유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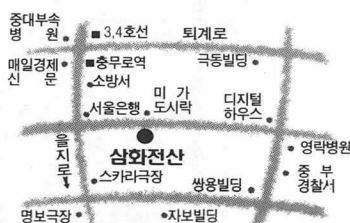
귀중한 자원으로 재생될 수 있는 종이가 이런 비효율적인 여건으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재생지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은 수요, 취약한 가격경쟁력, 폐지수거의 비효율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과제이다. 제지업체도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발맞추어 '수요가 있다면 생산한다'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출판사의 노력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요가 늘어난다면 재생지 역시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고 비쌀 이유가 없다. — 마정미 기자

IBM분판·윈도우용 아래아한글 전문출력

..... 한글프로96, 한글3.0B, 도스버전

24시간출력

- 4도분판 코렐, 포토샵, pagemaker
- 단 도 한글96 · 3.0B · 도스, 워드
- 프린트 한글, 한글워드, 혼민정음
- PC로 입력한 data 편집출력
- 한자 및 고어 100% 지원
- 국내의 모든 서체보유



삼화전산 sawh
 천리안 하이텔
 전화 263-2651~3 모뎀 277-8097,8

- 이런분을 기다립니다
- 윈도우용 한글의 출력이 않된다고 알고계시는 분
 - 한글을 이용한 조판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
 - 한글이 불편하게 생각 되거나 기능에 자신이 없는 분
 - 한글을 이용해 조판을 시작하려는 분
 - 출력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분